

익산, 도시공원 해법 '민간특례사업' 추진

내년 7월 시행 일몰제 대비 19곳 녹지조성 정책 수립 계획

익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특례사업과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수립 등 이원화정책을 마련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활용에 나선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9곳에 대해 공원 조성 필요성,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중 73%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요근린공원 8곳 중 소라·마동·모인·수도산·팔봉·북일·배산공원 등 7곳에 대해

국가정책을 연계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원 내 기존 훼손지와 환경, 식생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한정적으로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라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게 된다. 또 민간특례사업자는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70% 이상의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공원시설비용을 총담한 후 5~10% 가량의 개발 이익을 취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는 3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정부에서 제시한 일몰제 해법 중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을 5년간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지자체의 채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간특례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여가선용 욕구 충족에 나서는 한편 사유재

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불식에 주력한다. 시는 19개 일몰제 대상 공원 중 7개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12개 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해제 및 보전녹지 전환, 토지매입 등 여건과 재정의 운영 방안을 검토해 녹지조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종만 건설국장은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폐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출발 '순조'

가맹점 등록대상 8399개소 중 45% 등록

전국적 성공모델로 자리 잡은 군산사랑상품권이 9월 중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행하던 종이류 상품권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상품권을 출시할 계획인 군산시는 현재 모바일 가맹점 등록대상 8399개소(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 법인택시, 개인셀러(방판) 등 제외) 중 약 3800(45%)개소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은 안정성과 보안성에 강한 한국조폐공사에서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으며, 성남, 시흥에 이어 3번째로 선보이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기존에 은행을 방문해야만 구입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휴대 불편, 분실 우려 등 종이 상품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군산사랑상품권 판매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1인당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발행규모는 1000억원으로 할인율은 동일하게 10%이며 해당 상품권은 오는 15일부터 공무원에 대상으로, 8월 1일부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모바일상품권은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 후 가상계좌 입금이나 본인 계좌연결을 통해 구입 가능하며 구입한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찍으면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주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결제 금액이 자동 장산돼 환급통장으로 입금되며 가맹점주가 없는 경우 점원들도 점원등록을 통해 결제가 가능한 편리한 시스템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화폐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결제 시 항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없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가맹점들의 매출액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는 9월 시민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7~8월중 공무원 및 시민 시범운영을 실시해 개선사항 등을 도출, 9월 서비스 출시 전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청년정책 논의 본격화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 방향 논의를 본격화한다. 시는 10일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철웅 부시장 주재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과 청년희망도시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간보고회는 청년실태조사, 청년활동가와 창작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익산시의 기본현황과 청년정책 현황, 지역 청년의 수요조사 및 결과분석, 익산시 청년정책 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 후에는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반영해 오는 8월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최근 은파유원지 및 공동 주택 등 반려동물 돌봄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서 동물보호단체들과 협력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소유자의 법적 의무·법칙 사항 및 공영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견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에티켓(페티켓) 관련 사항을 홍보했다. 특히 7~8월 동물등록자 신고와 기간을 맞아 동물등록제도의 필요성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새롭게 구성

여성·청년농업인 분과 신설, 유사 분과 통합 운영

농업인 중심의 협치 기구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기 위원을 새롭게 구성해 10일 출범식을 가졌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 7월 변화하는 농정여건에 발맞추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민'이라는 주제로 읍·면·관·이 합께하는 농정거버넌스 기구인 '희망농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출범에 앞서 개최된 위촉총회에 출석에 앞서 개최된 위촉총회에 104명의 위원이 모여 제2기 희망농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고 이어진 출범 행사에 박철웅 익산시 부시장과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정명재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농업파트 공무원 등 1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위원회 출범을 축하했다. 희망농정위원회는 농업현장의 실질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대안 발굴 등을 위해 지난 5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한 T/F팀을 만들었고 읍면동을 통한 공개모집,

농업현장전문가 추천, 농업인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업인 참여를 더욱 확대했다. 출범 후 위원회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여성과 청년농업인인 분과를 추가로 신설해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유사한 분과는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는 시 산하의 위원회로 농업인과 학계, 전문가, 행정 등 총 104명이 참여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농정거버넌스 대표적 기구이다. 1기 운영협의회와 농민정책, 식량, 농촌활력, 원예특작, 유통, 식품가공, 축산, 산림 등 8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2기는 위촉직 위원 중 약 37%(27명)가 새로 온 위원으로 구성됐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대학교는 최근 대학 본부에서 (주)명신과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대-명신,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육성 업무 협약

군산대학교는 최근 대학 본부에서 (주)명신과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병선 군산대학교 총장 및 주요 보직자, 이태규 주식회사 명신 대표이사, 군산시청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협약은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군산대학교가 지역 산업체질을 신산업체제로 재편하고자 추진 중인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육성계획에 적극 참여, 군산강소특구 특화분야인 미래형 자동차 및 부품분야 상용화 특허기술, 관련 제품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련 분야 유망특허기술의 기술사업화 관련 상호협력(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업 육성 등 포함), 전기자동차 분야 및 기타 기술사업화 관련 공동관심 사항, 교육훈련, 취업 및 양 기관의 협력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개발청 방문 현안사업 해결 건의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을 방문해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된 새만금 사업 추진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김경구 의장과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은 김현숙 청장을 만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산단 활성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새만금산단 장기입대용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만금에 투자를 원하는 업체 중에서 업종 제한 때문에 새만금 산단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군산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만금산단을 비롯한 군산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해 고용 창출하는 것인 만큼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경구 의장과 신영자 위원장은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고용위지지역인 군산경제에 도움이 물론 전북도 내 업체에게 실질적인 경영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 입찰과정에서 과도한 자격제한으로 지역 업체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군산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참여기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숙 청장은 "지역발전과 환경해경제권 중심도시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새만금 지역 내 주요사업과 기반시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발공사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